

## 여성 영웅/신의 ‘패턴’과 정동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2025)와 〈세경본풀이〉의 비교 고찰 -

이소윤\*

- I. 문제 제기
- II. 악령과 살해의 패턴(pattern)
- III. 수치심(shame)과 죄의식
- IV. 마지막 질문

### <국문초록>

왜 여성 영웅은 수치심을 느끼고 여신은 죄의식을 느끼는가? 패턴(pattern)이 가시적인 형태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동 양식을 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와 <세경본풀이>에서 여성 영웅과 여신이 경험하는 정동이 일정한 패턴과 연결되어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케.데.헌>에서 루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악령의 패턴으로 인해 수치심을 겪는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질렀던 살해의 패턴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여성의 수치심은 여성의 몸이 늘 남성과는 다른 것으로 정의되어온 역사와 연관된다. 루미가 겪는 수치심은 젠더화된 정동인 것이다. 자청비의 죄의식 역시 그 시작에 성적 폭력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젠더와 무관하지 않다. 이후 서사에서 자청비는 수치심을 느끼도록 종용받는데 이 점에서 자청비의 죄의식은 수치심과도 연동된다. 루미는 수치심의 극복을 통해 여성 영웅이 되지만 자청비는 죄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여신이 된다. 이렇게 보면 여성 영웅의 행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로와 여신의 행로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태초의 월경 장면과 <케.데.헌>에서 루미가 자신을 ‘실수’로 칭하는 장면은 여전히 여성이 자기 부정의 감각 속에 정초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현실을 환기한다. 결국 여신과 여성 영웅의 행로는 겹쳐지는 것이다.

핵심어: 악령, 살해, 젠더, 극복, 내면화, 월경, 실수, 여성 영웅, 여신

## 1. 문제 제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이하 <케.데.헌>)는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 1위, OST <Golden>의 미국 빌보드 Hot 100 1위,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2026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 수상 등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그 폭발적인 대중적 인기만큼이나 <케.데.헌>은 학계에서도 단기간 방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했다. 제작 주체(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장 감독을 비롯해 한국계 외국인으로 대거 구성된 제작진과 미국 소니픽처스라는 제작사)와 배급 방식(미국 넷플릭스의 독점 배급)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케.데.헌>에 나타난 ‘코리아니즘’의 재현 양상을 살핀 연구<sup>1)</sup>부터 작품 전반에 흐르는 한국 무속신앙의 요소를 분석한 연구<sup>2)</sup>에서,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여성영웅소설, 애정전기소

1) 김공숙,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구현된 ‘코리아니즘’의 양상과 의의』, 『콘텐츠와 산업』 7-4,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117~123면.

2) 발행일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권민성·조희영, 『K-POP, 무속 판타지, 글로벌 OTT의 만남: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읽는 문화콘텐츠 진화 전략』, 『콘텐츠와 산업』 7-4,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201~210면; 조리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보는 한국 무속신앙의 현대적 가능성』, 『콘텐츠와 산업』 7-4,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235~239면; 강혜진, 『<귀공>, <K-pop 데몬 헌터스>로 본 K-판타지의 무속 활용 경향』, 『Journal of Korean Culture』 70,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25, 249~289면; 김성훈, 『샤먼 슈퍼영웅의 ‘길 파워’: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타난 포스트페미니즘의 변주』, 『문학과 영상』 26-2, 문학과영상학회, 2025, 377~408면; 조은영,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곳의 공연적 특성과 해원 기능의 변용 분석』, 『인문콘텐츠』 78, 인문콘텐츠학회, 2025, 269~296면; 김기창·김선영,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문화적 혼종성 연구: 전통 무속문화와 K-Pop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5-11, 한국콘텐츠학회, 2025, 177~192면; 조현아·김치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 분석-곳의 의례성

설, 구체적으로는 <바리공주>, <지네각시>, 『삼국유사』 소재 처용 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 서사와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sup>3)</sup>들이 이어졌다.

이상의 연구 경향에서 주로 탐색된 것은 <케.데.헌>의 주제 의식이었는데 주인공 루미를 중심으로 해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강혜진은 <케.데.헌>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실은 간단하다면서 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결핍과 감정에 솔직해질 것을 주제로 한다고 논의하였다.<sup>4)</sup> 김공숙 또한 <케.데.헌>에 대해 “약점과 결핍이 만들어내는 욕망과 죄의식, 수치심이 이야기의 근간”이라고 언급하였다. 반인반마(半人半魔)인 루미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타인과 화합하는 과정이 서사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sup>5)</sup> 권도영은 루미와 헛트릭스 멤버들이 정상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버림받음의 상태에 있으며 혼문을 형성해 악령을 몰아낸다는 목표는 자신들의 불완전한 정체성을 긍정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의미화했다.<sup>6)</sup> 김정은은 <지네각시>와 <케.데.헌>이 모두 “나는 누구인가”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서사적 화두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루미와 진우가 자기 내부의 결핍과 상처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극복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하였다.<sup>7)</sup>

본고의 관심사와 관련해 특히 유의미한 연구는 바로 김준희와 김성훈의 연구이다. 김준희는 조현설의 신탁 콤플렉스 개념을 원용해 루미의 반인반마라는 이중적 정체성이 그녀에게 불안의 정동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루

과 공연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88, 한국언어문화학회, 2025, 299~326면; 김준희, 「“영원히 깨질 수 없/있는” 불안을 통해 본 <케이팝 데몬 헌터스>」, 『2025 서울대학교 민속학연구센터 제2회 학술대회 샤머니즘과 K-컬처 발표자료집』, 34~44면.

3) 권도영,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타난 치유와 구원의 서사-전투미소녀 장르의 변용과 <바리공주> 서사의 현대적 구현」, 『한국문학과 예술』 55,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5, 297~330면; 김정은, 「<지네각시> 설화의 서사적 화두로 본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서사 원리 연구」, 『문학치료연구』 77, 한국문학치료학회, 2025, 89~125면; 정보라미, 「디지털 시대의 고전 서사 교육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소, 2025, 184~195면; 임재욱·최지너,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와 『삼국유사』 소재 <처용 이야기>의 상호텍스트성」, 『고전문학연구』 68, 한국고전문학회, 2025, 539~568면.

4) 강혜진, 앞의 논문, 273면.

5) 김공숙, 앞의 논문, 120면.

6) 권도영, 앞의 논문, 316면.

7) 김정은, 앞의 논문, 111~113면.

미를 신탁의 수신자로서, 쉘린을 신탁의 중개자로서 분석하며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고찰한 접근 방식은 본 연구에 큰 시사점을 준다.<sup>8)</sup> 한편, 김성훈은 루미의 성장 서사가 트라우마의 극복과 자기수용에 있음을 밝히면서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성으로서 루미의 몸에 새겨진 문양은 그녀가 숨겨야 한다고 느끼는 “수치”(shame)를 문자적으로도 은유적으로도 드러낸다.”는 것이다.<sup>9)</sup> 김성훈의 지적대로 <케.데.현>에는 실제 ‘수치심(shame)’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sup>10)</sup> 그런데 수치심이 젠더화된 정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영웅이 수치심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서사를 완성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sup>11)</sup> 본고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수치심이 여성성과 매우 밀접한 정동이라는 점에 보다 방점을 두고 <케.데.현>의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케.데.현>에서 여성 영웅의 수치심이 부각된다는 사실에 천착할 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세경본풀이>이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농경신화로 자청비라는 여신이 등장한다. 이에 이 작품의 농경신화적 성격을 해명<sup>12)</sup>하거나, 여성 영웅서사로서의 의의를 규명<sup>13)</sup>하려는 연구들이

8) 김준희, 앞의 논문, 36~39면.

9) 김성훈, 앞의 논문, 391~392면.

10)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shame은 대화 상황에 따라 ‘치부’ 또는 ‘수치’로 번역된다. 말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그때그때 다른 번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통상적으로 shame이 수치심으로 번역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수치심’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11) 에리카 L. 존슨, 퍼트리샤 모린 편, 『여성의 수치심: 젠더화된 수치심의 문법들』, 손희정, 김하현 역, 글항아리, 2022, 39~40면.

12)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147~172면;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연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07~346면;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격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흥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363~394면;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53~74면; 오세경,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59~290면;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119~145면;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93~219면; 정진희, 『풍농(豊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111~144면; 정진희, 『풍요 여신은 ‘생산’하는가?—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83~224면.

있었다. 최근에는 주인공 자칭비에 비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정수남과 그 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14)</sup> 그에 반해 현대 콘텐츠와 비교하려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세경본풀이>는 여신이 중심이 되어 서사를 이끌어가며, 그 과정에서 여신의 죄의식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케.데.헌>에 나타난 여성 영웅의 수치심을 논하기에 적절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 자칭비는 정수남을 살해한 후부터 줄곧 자신의 죄에 대해 말한다. 왜 여성 영웅은 수치심을 느끼고, 여신은 죄의식을 느끼는가? 수치심이 젠더화된 정동이라면 죄의식은 어떠한가? 각각의 정동이 이 여성 영웅과 여신의 운명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케.데.헌>과 <세경본풀이>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우선 파악하려는 것은 각 서사에 드러나는 '패턴'의 양상이다. <케.데.헌>에서 루미의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은 악령의 패턴이다. 그런데 패턴(pattern)은 주지하듯 일정한 형태나 행동 양식 등 여러 의미를 지니는 단어이다. 패턴의 다의성은 <케.데.헌>과 <세경본풀이>를 한 궤로 읽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결국 패턴이라는 단어의 뜻이 지니는 공통된 함의는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13) 좌혜경, 『즈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1998, 181~199면;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53~76면;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 2000, 293~323면;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199~229면;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여성영웅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207~244면;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2면;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5~42면;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7~30면; 이소윤, 『해계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5~44면.

14) 이은희,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 '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론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233~262면; 김나영, 『노비로 등장하는 정수남과 느진덕정하님의 정체-안사인본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105~140면; 김신정, 『제주도 신화 속 반(半)영웅적 존재의 의미』, 『우리말글』 79, 우리말글학회, 2018, 281~307면; 구태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의 역할과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5-5,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35~68면; 조현설, 『정수남의 동물성과 자칭비의 동물 되기- <세경본풀이> 보론-』, 『구비문학연구』 78, 한국구비문학회, 2025, 171~200면.

<세경본풀이>에서도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케.데.헌>에서 악령의 패턴이 루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듯 <세경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패턴도 자청비의 죄의식과 연관된다. 따라서 2장에서는 패턴이라는 단어의 다의성을 통해 <케.데.헌>과 <세경본풀이>를 독해하고, 3장에서 본격적으로 두 서사에 드러나는 수치심과 죄의식의 정동에 대해 해명할 것이다.

## II. 악령과 살해의 패턴(pattern)

<케.데.헌>의 세계에는 악령과 그 악령을 소탕하는 헌트릭스가 공존한다. 헌터의 기원을 설명하는 프롤로그 장면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어두운 밤, 사람들을 위협하는 악령은 마치 지진으로 갈라진 것 같은 땅속에서 기어 나와 사람들을 덮친다. 악령이 빼앗은 사람들의 영혼은 창공을 가로질러 귀마에게 보내지는데 귀마가 기거하는 공간은 헌트릭스가 살아가는 세계와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원을 달리하면 필요한 일종의 포털(Portal), 즉, 서로 다른 차원을 연결하는 가상 통로나 운송 수단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세계에 이들이 공존하고 있기에 헌트릭스가 악령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악령으로 잠식되어버린다.

헌트릭스가 그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통해 형성해야 하는 골든 혼문은 악령을 덮기 위한 방어막이다. 그러나 아직 골든 혼문은 완성되지 않았고 헌트릭스가 살아가는 세계는 악령이 모습을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실제로는 악령이지만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위장한 사자 보이즈가 거침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까닭도 <케.데.헌>이 그리고 있는 세계가 이미 균열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목욕탕과 지하철, 편의점, 전광판 등 일상적 공간에까지 악령이 침투해 있다는 데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 그림 1 넷플릭스 캡처 >

문제는 주인공 루미의 몸이다. 루미의 몸에 새겨진 악령의 패턴은 루미가 정치해야 하는 악령의 세계를 의미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루미가 어렸을 적 악령의 패턴은 그녀의 오른쪽 팔 상단에만 희미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루미의 양 팔을 다 덮고 있다. 루미가 성장하면서 악령의 패턴이 그녀의 몸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루미의 몸은 정확히 이 세계를 유비한다. 세계가 점점 악령으로 물들고 있음을 루미는 자신의 몸으로 현시한다. 따라서 세계의 위기는 곧 루미 자신의 위기인 것이나 다름없다.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루미가 자신의 몸에 커져가는 악령의 패턴을 신경 쓰며 목소리의 힘을 잃을수록 악령들은 득세하고 세계는 더 큰 위협에 빠진다. 또다시 루미가 젊어져야 하는 헌트릭스로서의 사망감은 무거워진다. 루미의 몸은 악순환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다.<sup>15)</sup>

15) 김준희도 “루미의 불안과 세계 전체의 운명 간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찰했다. 김준희, 앞의 논문, 37면.



< 그림 2 넷플릭스 캡처 >

<세경본풀이>에는 주인공 자청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상대방이 ‘귀신’인지 ‘생인’인지를 묻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 예컨대, 자청비의 태몽을 꾸 조진국 부인이 사랑방에 있는 남편 김진국 대감을 찾아갔을 때 김진국 대감은 아내에게 귀신인지 생인인지를 물으며 혹여나 귀신일까 귀신을 쫓는 옥추경을 읽는다.<sup>16)</sup> 마소 열여덟 마리를 모두 먹어 치우고 오리를 대신 잡아가려다 옷까지 다 잃은 정수남이 장항(醬缸) 뒤에 숨어 있을 때도 자청비는 “야아 귀신이나 생인이나/흔적 나오라./아니 나오민, 하늘 옥황 옥추경(玉樞經) 불러당 거꾸로 느다 스물흔(二十一) 번, 읽으켄.”이라며 호령한다.<sup>17)</sup> 정수남을 죽인 탓에 집에서 쫓겨나 주모할망의 수양딸이 된 자청비를 문도령이 찾아왔을 때도,<sup>18)</sup> 주모할망에게도 쫓겨나 중이 된 자청비가 하늘옥황으로 올라가 문도령과 재회했을 때도<sup>19)</sup> 이들은 서로 귀신인지 생인인지를 묻는다.

기실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존재하는 주년국 땅, 문도령이 존재하는

1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68면.

17) 허남훈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09, 258면.

18) 허남훈, 위의 책, 274면.

19) 허남훈,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265면.

하늘옥황, 또 자청비가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방문하는 서천꽃밭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이중 하늘옥황과 서천꽃밭은 이계(異界)로 분류된다. 하늘옥황에 올라가기 위해 노각성자부줄<sup>20)</sup>이 사용되긴 하지만 자청비나 다른 등장인물들에게서 이계에 대한 뚜렷한 감각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공간 구획과는 별도로 자청비와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귀신이 침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인 뒤 도망치는 과정에서 삼천선비들이 정수남의 혼령을 보게 되는 장면은 <세경본풀이>의 세계 역시 <케데헌>의 세계처럼 귀신이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멩게낭 가지 빼내어 웬귀 느단귀더레 찌러 찢러구나  
 각시말다 서방말다 부영 부영새가 되었구나  
 이젠 이 몰아 저 몰아, 너영 나영 아니 죽을걸  
 이제 물을 타아진 오는게 삼도진 거리에  
 삼천선비들이 아잔 두어바둑을 떠엄구나예~ (장고)  
 넘어가간 얼굴은 천하꽃핀일색이로구나 만은  
 놀랑내가 탕천헌다 놀핏내가 탕천허는구나  
 무지럭 총각놈이 뭉머리 좃양감저  
 바름 알로 나고가렌 흥난, 집으로 드러 오라가는구나<sup>21)</sup>

바둑을 두던 삼천선비들은 자청비가 지나가자 날랑내와 날핏내가 진동한다면서 총각놈이 자청비의 말머리를 찾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 총각이 죽은 정수남의 혼령인 것이다. 이달춘본에서는 “산신님이 경을 읽어 그 생죽산일 털어준다.”<sup>22)</sup> 여기서 ‘생죽산이’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이로, 자청비가 살해한 정수남의 혼령을 가리킨다. 죽은 자의 세계에 있어야 하는 혼령이 산 자의 세계를 떠돈다.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기에 생사의 경계에 걸쳐져 있는 자인 것이다. 강을생본에서는 백발노인이 자청비에게 오늘 사오시가 되면 그 ‘귀신’한테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다.<sup>23)</sup>

20)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제주: 각, 2007, 293면.

21) 문무병, 『제주큰굿 자료집 1』, 황금알, 2019, 483면.

22)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248~249면.

23) 진성기, 위의 책, 291면.

흥미로운 점은 루미의 몸에 가시적인 문양으로 악령의 세계가 각인되어 있다면 자청비는 정수남의 살해 이후로 죽음의 세계가 그녀의 몸에 일정한 행동 양식으로 각인된 것 같다는 사실이다. 강진옥은 자청비가 살해자가 됨으로써 모두 접촉을 꺼리는 터부(taboo) 존재로 전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원의례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주모할망에게 축출되는 등의 상황은 자청비가 터부로서의 존재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강진옥의 견해는 타당하지만 자청비가 터부로서의 존재태를 지속하게 되는 원인을 추궁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패턴(pattern)이 가시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동 양식을 뜻하기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청비의 몸에는 행동의 측면에서 살해의 패턴이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실제로 자청비는 정수남의 귀를 꼬챙이로 찢러 죽인 뒤 집에서 쫓겨나 주모할망의 수양딸로 살다가 문도령과 재회할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귀신인지 생인인지를 묻다가 바늘로 문도령의 손가락을 찢러 피를 흘리게 하고 문도령은 ‘인간에 사람 올 디 아니로구나.’<sup>25)</sup>라고 생각하며 하늘옥황으로 돌아가 버린다.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찢러 피가 나게 하는 이유는 각편마다 다르다. 서순실 심방은 문도령을 다시 만난 것이 반갑고 기뻐서,<sup>26)</sup> 이용옥 심방은 ‘요 문도령 아니면, 내가 무사, 이 고생(苦生)을 허명/무남독녀(無男獨女)로 낭~ 이와 ㄹ찌, 부모덜, 산진 이별허영/애아가슴 불 부찌 놓양/영 허리.’라는 생각에 문도령이 꽤 씹해서<sup>27)</sup>, 이달춘 심방은 순전히 문도령이 귀신인지 생인인지를 판별하기 위해<sup>28)</sup> 자청비가 바늘로 문도령의 손가락을 찢러봤다고 구술한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왜 하필이면 자청비는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찢러’ 피가 나게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자청비의 행동은 그녀가 정수남의 귀를 꼬챙이로 ‘찢러’ 죽게 했던 몸의 기억을 환기한다.<sup>29)</sup> 손가락에 피

24) 강진옥, 앞의 논문, 325~326면.

25)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190면.

26) 허남춘, 위의 책, 2015, 190면.

27) 허남춘, 앞의 책, 2009, 274면.

28) 진성기, 앞의 책, 253면.

29) 이달춘본과 안사인본에서 자청비가 서천꽃밭에 가 부엉이를 사냥할 때도 자청비는 부엉이를 잡은 뒤 화살 한 대를 부엉이 몸에 ‘찢러’ 죽인다. 이때 자청비가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

가 멧힌 문도령이 지상 운운하며 결별을 고하는 것도 자청비의 행동을 통해 살인이 벌어지고 귀신이 난무하는 인세의 부정함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 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0)</sup>

루미의 악령 패턴이 형태의 영역에 있다면 자청비의 살해 패턴은 행동의 영역에 있다. 그것이 문양이든 혹은 행위이든 이들이 지닌 패턴은 터부의 징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패턴이 이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정동을 야기하고 그러한 정동이 이들이 여성 영웅/신이 되는 핵심적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다. 루미의 경우 수치심의 정동이, 자청비의 경우 죄의식의 정동이 나타나는데, 미리 언급하자면 이들 정동은 각 서사에서 전대화된 정동들로서 서로 맞물린다.

### III. 수치심(shame)과 죄의식

루미의 수치심(shame)은 귀마와 진우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진우는 루미가 지닌 악령의 패턴을 그녀에게 수치심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sup>31)</sup> 진우가 자신 또한 악령의 패턴이 있는 느낌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이다. 진우는 악령의 패턴을 가진다는 것이 수치심과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한다.<sup>32)</sup> 악령의 패턴이 있다는 공통분모로 진우와 공감대

---

다가 부영이가 그녀의 몸 위로 올라왔을 때, 부영이를 잡는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안사인본에서는 정수남의 이름을 부르며 부영이 몸으로 환생해서 자신의 몸 위에 올라앉아 보라고 이야기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죽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진성기, 위의 책, 251면; 현용준, 앞의 책, 288면.

30) 김재용은 문도령이 홀린 '피'가 살해와 관련된다고 해석한다. 자청비의 정체성이 피와 친숙한 수렵인의 범주에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게 하는 장면을 자청비의 정수남 살해와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김재용, 앞의 논문, 63면.

31) 본고에서 인용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대사는 넷플릭스의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병기한 것이다. 밑줄과 진하게는 필자 표시. 이하 동일.

귀마: One of the Hunters bears my mark, but I have no control over her.(내 문양을 가진 헌터가 있는데 그 애를 조종할 수가 없어.)

진우: This is good. This means she has shame. I'll find out what it is and we can use it to destroy her and the hunters for good.(잘됐어요. 치부가 있다는 거니까. 뭔지 알 안에서 그걸 이용해 개뿐 아니라 헌터 모두를 궤멸할 겁니다.)

32) 진우: Hey! I just wanna talk!(잠깐만! 난 얘기하러 온 거야.)

를 쌓은 루미가 진우에게 귀마를 물리칠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할 때, 루미도 악령의 패턴이 자신에게 끼친 정신적 상흔에 대해 털어놓는다.

루미: I spent my whole life keeping this secret, this shame of what I am. And the more I hid this shame the more it grew and grew until it started to destroy the one thing that I gave me a purpose: my voice.(난 평생 이 비밀을 품고 살았어. 내 존재 자체가 내 치부였지. 근데 숨기면 숨길수록 수치심은 커져만 갔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해 준 유일한 것이 망가져 버렸어. 내 목소리.)

루미는 악령의 패턴을 비밀로 숨기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수치심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숨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수치심만 커져갔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던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루미가 지닌 악령의 패턴은 결국 귀마를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악령의 패턴으로 인해 루미는 진우와 연대할 수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혼문을 완성하기 때문이다.<sup>33)</sup>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루미: Talk?(얘기?)

진우: About your patterns?(네 문양에 대해서.)

(...중략...)

진우: A demon girl, Also Hunter. Hiding, walking around free in the human world.(악령인 동시에 헌터인 여자가 인간 세상에 숨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닌다고?)

루미: Just Hunter, not demon.(악령 아니고 헌터야.)

진우: Then how did you get the patterns?(그럼 문양이 왜 있어?)

루미: That's none of your business.(넌 몰라도 돼.)

진우: Huh.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have them.(나도 알아, 그 문양을 가진 느낌.)

루미: Feel? You're a demon. Demons don't feel anything.(느낌? 넌 악령이야. 악령은 아무 것도 못 느껴.)

진우: Is that what you think? That's all demons do. Feel. Feel our shame. Our misery. It's how Gwi-Ma controls us. Do you not hear him in your ear?(그렇게 생각해? 악령은 느끼고 또 느껴. 수치와 비참함에 빠져 있지. 귀마는 그거로 우릴 조종해. 넌 귀마의 목소리가 안 들려?)

(...중략...)

진우: These are a constant reminder of my shame. A shame I can never escape. Yours are a reminder too. Of a shame of your own.(이건 내 치부의 영원한 흔적이야. 떨쳐 낼 수 없는 기억이지. 네 것도 뭔가 흔적이야. 숨기고 싶은 게 있겠지.)

33) 권도영은 <바리공주>와 <케.데.현>을 비교하며 진우를 무장승과 견주었다. 무장승과 진우는 모두 “주인공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중간 단계”에 해

악령의 패턴과 그로 인한 수치심은 루미를 계속해서 옥죄어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케.데.현>은 악령의 패턴이라는 비밀을 간직한 여자아이가 그로 인한 수치심을 이겨내고 악령의 왕 귀마를 물리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본고의 질문은 '이 여성 히어로물에서 여성 영웅이 극복해야 하는 정동이 왜 꼭 수치심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점이다. 수치심이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 등 여성성과 관련해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정동이라는 점은 본고에서 제기하는 질문에 힘을 신는다.<sup>35)</sup> 물론 남성인 진우도 악령의 패턴이 있으며 가족을 저버린 자신의 과거 때문에 수치스러워한다. 그러나 영화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진우를 괴롭게 하는 것은 수치심의 증좌인 악령의 패턴이라기보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귀마의 목소리이다. 따라서 진우는 루미에게 귀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란다. 그에 반해 루미는 자신의 양팔에 있는 악령의 패턴이 혹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노출될까 두려워하며 옷으로 두 팔을 가린다. 수치심은 루미의 몸에 가시적으로 드러붙어 있다는 점에서 진우의 수치심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물론 이는 진우는 이미 악령이고 루미는 반인반마라는 점에서 인물의 입장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왜 루미의 신체에 퍼진 문양과 그로 인한 수치심이 이 서사의 주안점이 되는 것인지는 수치심이 젠더화된 정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수치심은 여성의 몸이 역사적으로 남성과는 다른, 예외적인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마음과 몸의 이분법에서 여성은 항상 몸의 영역을, 종속적이고 편하된 축을 맡아왔다.<sup>36)</sup>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장(場) 의존적이라는 연구 결과<sup>37)</sup>는 수치심이 기본적으로 간주관적인 속성

당한다고 보았다. 권도영, 앞의 논문, 317면.

34) 이러한 <케.데.현>의 주제의식에 대해서는 1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35) 에리카 L. 존슨, 퍼트리샤 모런 편, 앞의 책, 10~11면. 김성훈은 루미의 악령 패턴이 인종적, 문화적 경계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나 혼종성에 대한 알레고리를 나타내거나 LGBTQ+에 관한 퀴어코드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빌어 영화에 드러나는 수치와 혐오의 감정이 이를 간접적으로 확장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참고해볼 때도 수치심이라는 정동이 여성 영웅과 엮이는 지점을 고찰하는 본 연구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6) 에리카 L. 존슨, 퍼트리샤 모런 편, 위의 책, 39~40면.

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지어 볼 때 수치심이 여성과 더 밀접한 정동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수치심은 “위신을 잃은 자아에 대한 정신내적 우려와 관계될 뿐 아니라 타인의 눈에서 위신을 잃은 자아에 대한 간주관적인 우려와 관계”<sup>38)</sup>되기 때문이다.

루미가 끊임없이 자신의 패턴을 가리는 것도 자신의 동료인 미라와 조이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라와 조이가 악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이 작사한 <Take down>의 가사를 통해 극단적으로 제시되는데, 미라와 조이에게 있어 악령은 “아무것도 못 느껴 살려 둘 필요 없”고 끌어내고 치워버려야 할 존재이며<sup>39)</sup> 그러한 악령을 식별하는 가장 명징한 표식은 ‘패턴’이다. 루미가 느끼는 수치심은 악령의 패턴이 자신의 몸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점을 미라와 조이에게 비밀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 탓도 크다. 그래서 루미는 진우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비밀과 수치심을 연동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밀이 밝혀지고 루미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 자신의 패턴을 본 미라와 조이의 냉대에 루미는 크게 동요하고 끝내 혼문은 파괴된다. 그런데 루미의 수치심은 미라와 조이의 수치심도 자극한다. 미라는 가족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고, 조이는 너무 과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 악령의 목소리를 통해 주지된다. 악령의 목소리는 미라와 조이가 평소에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을 겨냥한다. 이 역시 수치심이 타자의 평가를 신경 쓰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가 진체가 됨을 보여준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경험하는 것임과 동시에 타자의 눈에 보이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40)</sup> 수치심이 낙수효과를 만들어내는 이 문제 상황의 근원에 루미의 수치심이 놓여 있다. 해결의 실마

37) 에리카 L. 존슨, 피트리샤 모런 편, 위의 책, 44면.

38) 에리카 L. 존슨, 피트리샤 모런 편, 위의 책, 24~25면.

39) 관련된 부분의 대사와 가사를 제시하면 이와 같다.

미라: Oh! Oh! How about... “A demon with no feelings doesn't deserve to live”? (아! 이거 어때? ‘악령은 아무것도 못 느껴, 살려 둘 필요 없어.’

조이: It's so obvious! (당연하지!)

[HOOK] I'mma gear up and take you down. It's a take down. Take you down. (널 끌어내려 줄게! 끌어내려! 끌어내려!)

40) 에리카 L. 존슨, 피트리샤 모런 편, 앞의 책, 34면.

리는 루미가 자신의 수치심을 떨쳐 버리고 그에 미라와 조이가 화답하는 데 있다.

Nothing but the truth now, Nothing but the proof of what I am.  
The worst of what I came from. Patterns I'm ashamed of.  
Things that even I don't understand.  
I tried to fix it, I tried to fight it.  
My head was twisted, my heart divided, My lies all collided.  
I don't know why I didn't trust you to be on my side.  
I broke into a million pieces and I can't go back.  
But now I'm seeing all the beauty in the broken glass.  
The scars are part of me. Darkness and harmony.  
My voice without the lies. This is what it sounds like.  
(이제는 진실뿐이야. 나라는 존재를 말해 줄 증거.  
나의 가장 깊은 심연. 부끄러운 문양.  
나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을.  
고치려 했어. 싸우려 했어.  
머릿속은 뒤엉켰고, 마음은 갈라졌어.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 왜 너희를 믿지 않았을까?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산산이 부서진 조각.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깨진 유리 조각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  
상처는 나의 일부. 어둠, 그리고 조화.  
거짓없는 내 목소리. 여기에 울려 퍼져.)

루미가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문양(Patterns I'm ashamed of)에서 아름다움(The beauty)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선창하고 그에 조이와 미라가 각각 “왜 머릿속의 색깔들 감추려 했을까?(Why did I cover up the colors stuck inside my head?)”, “날카로운 모서리들 빛 아래 두지 않았을까?(I should've let the jagged edges meet the light instead.)”라고 하모니로 동조해줄 때 혼문은 다시 만들어진다. 헛트릭스의 합창으로 혼문을 완성하고 귀마를 몰아내는 마지막 장면은 수치심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때에도 ‘나라

는 목격자와 ‘타자’라는 목격자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자청비의 죄의식은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해하고 말을 타고 도망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모든 각편에서 자청비는 말에게 “이 몰아 저 몰아 온 길 군짜 충양 클라. 잘못 가민 느도 죽고 나도 죽나.”<sup>41)</sup>라고 절박하게 외친다. 안사인 심방 구연본에서는 그런 자청비를 보고 삼백관이 부정이 만만치 않으니 바람 아래로 지나가라고 말한다. 왜 그런 말을 하나고 자청비가 반문하자 삼백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백관이 말을 흐뭇,

“날로 나 췌(罪)는 모른다더니, 이 년아, 저 년아, 너 몰무  
제미 앞(前)을 보라. 무지력총각놈이 웬귀(左耳)로 느단  
귀(右耳)레 멩게낭 살 혼 대를 찢러놓고 유월(流血)이 낭즈  
(狼藉)혼 무지력총각이 산 중 모르르냐?”

“과연 날로 나 췌(罪)를 아옵네다.”<sup>42)</sup>

삼백관은 자청비에게 내 죄는 내가 모른다더니 말 앞에 있는 정수남의 혼령을 보라고 호통친다. 정수남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삼백관 앞에서 자청비는 “과연 날로 나 췌(罪)를 아옵네다.”라며 굴복한다. 자청비가 왜 정수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사(前史)는 여기서 지워진다. 부모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청비는 정수남이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에둘러 말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 종은 살려두면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몽(노동)은 허여 준다.”<sup>43)</sup>는 것이다. 그 종이 자청비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부모는 함구한다.

정수남의 성적 욕망은 그간 많은 해석을 불러왔다.<sup>44)</sup> 최근 자청비에 대

41) 강소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24, 248면.

42) 현용준, 앞의 책, 286면.

43) 현용준, 위의 책, 287면.

44) 이수자는 힘 있는 남성의 성적 횡포와 여기에 대처하는 힘 없는 여성의 기지가 대비된다고 논의했다. 신화 형성 집단은 여성이 지혜를 통해 남성의 완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석했다. (이수자, 앞의 논문, 157면) 신동훈은 신화의 심층을 살펴볼 때 정수남의 성적 욕망은 인간의 외면과 방치 속에서 거칠어진 땅이 인간을 향해 베푸는 보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동훈, 앞의 논문, 131면) 한편, 이소윤은 정수남의 성욕이 그가 남근 중심의 색수열리티에 기반한 남성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이해했다. 섹스하는 몸이

한 정수남의 성적 집착을 정수남의 목축신적 본질을 보여주는 요소로 분석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테우리코사 이후 유감주술적 성애의례에서 찾는 연구도 제출되었다.<sup>45)</sup> 해당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청비가 정수남의 성적 희롱에서 느낀 “이 놈 살렸다는 나가 먼저 죽을 테니 이 놈부떠 먼저 죽이자.”라는 위기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목축신으로서 정수남이 지닌 성적 욕망이 신화를 향유하는 공동체 내에서 긍정시되는 신성한 가치였다고 하더라도 자청비가 느낀 위기감은 신화에 명백하게 등록되어 있다. 신화가 전승되는 맥락과 역사를 고려해 텍스트를 면밀히 읽어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논의<sup>46)</sup>를 수용할 때 자청비의 정수남 살해와 이로 인한 죄의식을 둘러싼 장면들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용인해온 역사를 일정 부분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청비가 느끼는 죄의식 또한 젠더화된 정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수남의 살해가 ‘죄’로 규정되면서 피해자가 느낀 고통은 입막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청비가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것이 종용된다는 점에서 자청비의 죄의식은 수치심과도 연계된다. 이후 자청비는 문도령과 하늘옥황에서 재회했을 때 “난 인간에서 죄(罪)도 많이 지곡/한도 많곡 허연/이까지 오랏수다.”<sup>47)</sup>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케.테.헨>은 악령의 패턴이라는 비밀을 가진 여자아이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악령을 퇴치하는 데 성공하는 여성 영웅 서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경본풀이>는 어떠한가? 자청비의 죄의식은 정수남을 살리는 결말로 이어진다. 이는 ‘죽음-삶’이라는 농경의 원리를 자청비가 체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정수남을 죽이고 다시 살림으로써 자청비가 농경신으로서의 자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sup>48)</sup> 물론 자청비가 남성의 공간에서 유래한 풍요를 지상 세계로 매개하거나 전달하는 데 그치기에 ‘생산하는 여신’으로 볼 수 없다는 논의도 존재한다.<sup>49)</sup> 그러나 대개 농경신화에 등장하

노동하는 몸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청비 부모의 말에 의해서인데 이에 따라 정수남의 남성성은 남근 중심의 섹슈얼리티에서 육체노동에 중심을 두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소운, 앞의 논문, 13~16면.)

45) 조현실, 앞의 논문, 195~196면.

46) 정진희, 앞의 논문, 2015, 219~220면.

47) 허남춘 외, 앞의 책, 2009, 278~279면.

48) 강진옥, 앞의 논문, 330~335면.

는 ‘죽음-삶’의 양상이 농경 원리와 유비 관계에 놓여 있고 <세경본풀이>에서는 그 주체가 자청비가 된다는 점에서 자청비는 농경신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케.데.헨>과 달리 자청비의 죄의식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 영웅과 여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자청비는 죄의식을 계속 내면화한다. 부모에게서 파문당한 뒤 자청비는 정수남을 살리러 서천꽃밭으로 간다. 자청비의 내면화된 죄의식이 정수남을 살리기 위한 고행으로 들어서게 한 것이다. 물론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살려야만 하는 농경신의 숙명이 자청비를 서천꽃밭으로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는 정수남을 살림으로써 이후에 죽은 문도령을 다시 살리게 되고 중국에는 농사의 풍흉을 주관하게 된다. 죄의식의 내면화가 자청비를 여신으로 웅립하는 것이다.

자청비의 내면화된 죄의식은 서천꽃밭 김정승 딸아기를 챙기는 자청비의 모습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혼인으로 파혼당한 서수왕 딸아기는 각종 사기(邪氣)를 초래하는 새가 된다. 사기 중에는 해만리(海萬里)라 불리는, 부부가 멀어지게 하는 기운도 있었다.<sup>49)</sup> 그 탓인지 자청비는 은연중에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왔음을 의식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도령을 서천꽃밭의 김정승 딸아기에게 보낸다. 자청도령으로 위장하고 김정승 딸아기와 혼인함으로써 김정승 딸아기의 팔자를 그린 자신의 죄를 갚으려는 것이다.<sup>51)</sup> 죄의식은 스스로 유감스럽기에 그것을 보상하려는 행위를 수반한다.<sup>52)</sup> 자청비가 한 행동은 자청비가 지속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9) 정진희, 앞의 논문, 2015, 200~201면.

50) “서수왕 딸아기는/석달열흘 백일 되어서 문 열안보니 머리로는/뒗통새가 나고 눈으로는 곱방 새가 나고/코으로는 훌그새가 나고 입으로는 악십새가 나고/가슴에는 어혈새가 나고 남즈에는 곱방새를 불러주고/여즈에는 해만리를 불러주어./즈청비가 제남으로 제 사주를 그리쳐가 는고.” 장주근, 앞의 책, 188면.

51) “즈청비가 곱곰이 생각허난, 아무리 헤여/도 해말류가 들어가는구나. [소리] 살쟁 헤여도 승업을 드러간다. “문/도령남아 금시상에/김정승 첩이/말짓딸아기/이거~/즈운사위 들언/오란, 오난 즈청~비/[말] 그디 가그네 선보름을 살건 이디랑 오랑 후보름을 삼서, 가그네/어명허난 얼굴이영 경, [소리] 죽을 스경에 당헤여시니 허거들랑, 나 자/주자주 강 웨령 삼동남에 용얼레기, 혼 짝 잇이난 그걸 강 앗앙 오젠 헤/여 가민 알아볼 도래가 잇십네다에-.” 허남춘 외, 앞의 책, 2013, 266~268면.

52) 에리카 L. 존슨, 피터리샤 모던 편, 앞의 책, 21~22면.

#### IV. 마지막 질문

패턴이라는 다의어에 주목해 서사를 분석할 때 <케.데.헌>과 <세경본풀이>는 각각 악령의 패턴과 살해의 패턴이라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악령의 패턴은 수치심의 정동과, 살해의 패턴은 죄의식의 정동과 연결된다. 루미는 수치심의 정동을 극복함으로써, 자청비는 죄의식의 정동을 내면화함으로써 각자 여성 영웅과 여신이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왜 여성 영웅과 여신은 수치심과 죄의식의 정동을 극복 또는 내면화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김재용은 <세경본풀이>에서 피흘림의 사건이 두 번 등장한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가 나게 하는 사건이며, 두 번째는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혼하기 위해 며느리 시험을 치르던 중 숯불 놓인 칼 선 다리를 건너다가 발뒤꿈치를 칼로 베여 피가 나는 사건이다.<sup>53)</sup> 다소 길지만 여성성과 수치심, 죄의식의 관계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장면이기에 아래 인용하도록 한다.

땅 쉬흔(五十) 둥이를 파 놓고 숯 쉬흔 가맹이를, 놓양, 땅, 쉬은  
 자를 파 놓고 숯 쉬흔 둥이 놓양, 불 와랑와랑 살랑, 그디~에 칼을 놓  
 양, 그 칼을 받아들고 발아나민, 우리 메누리 혈 자격이 당당히 잇젠,  
 어서 나오렌.” 허난  
 헤영헌 옷 우알 치메 저고리 입어 놓고  
 ‘맹천(明天) ㄱ똥 하늘님아~  
 아이고 나~ 저 칼을 받아들고 발아날거우다만은, 나 췌(罪)엔 헌 건  
 아똥 췌도 엇수다.  
 즈청비 비새 ㄱ찌 울멍, 정수냄이 죽엇단 살린 췌 뻗긴 엇수다.  
 아이고 날 살리컨, 대호방 수천 리 비나 내리게 시겨줍서.’  
 그때엔 아닌 게 아니라  
 올라상~, 받아들고 발아나젠 허여가난  
 비가 혼 방울 두 방울, 또록또록 떨어지는 게 대호방, 수천 리가 되엇  
 구나에.

53) 김재용, 앞의 논문, 63면.

다 그 비 맞아그네  
 칼은 식어 가는 냥, 자청비는 발아나곡  
 마지막 깎터머리 다가가난 씨어멍 오란 “나 메누리, 아이고 적실  
 허게 나 메누리 뉘, 자가 당당허덴.” 해연, 폭허게 안은 게 발, 뒤킴치를  
 간 쏘악허게 베엇구나에.  
 아이고 치메깍엔 보란  
 즈지피가 불꽃허게 묻혀지난 씨아버지 씨어머니신디 간 이젠, 업대  
 를 허연~ 허난, “야 메놀아기씨야 어뎡허난 느 그 치메깍에 즈지피가  
 메겨 지어시냐?” 아이고, 그거 베여지엇젠 허민 메누리, 아니허켄 허카  
 부텐 “모른 소리 맘서. 여자엔 현 건 열다섯 십오 세가 넘으민 선보름  
 후보름, 범 잇영, 월경법(月經法), 뉘는 범이웨다에.”  
 그 법으로  
 열다섯 십오 세가 넘으민 선보름은 후보름  
 월경법도 마련뉘엿수다.<sup>54)</sup>

숯불을 놓은 칼 선 다리 앞에서 자청비는 하늘님에게 정수남을 죽였다  
 살린 자신의 죄를 고한다. 하늘님의 마음이 동한 것인지 비가 쏟아져 숯불  
 이 식고 자청비는 다리를 무사히 건넌다. 거의 다 건너왔을 즈음, 자청비  
 에게 마음의 문을 연 시어머니가 다가와 자청비를 폭 안는다. 그 바람에 그  
 만 자청비의 발뒤꿈치가 칼에 베여 피가 나고 만다. 이 사실을 모르는 시부모  
 가 자청비에게 치맛자락에 피가 묻은 연유를 묻자 자청비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로 안 삼을까 싶어 여자는 15세가 넘으면 선보름, 후보름 법이 있다  
 고 이야기하며 월경법을 마련한다. 김재용은 월경피가 생명의 풍요를 의미  
 하기에 이 장면이 월경과 농경의 풍요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은유적 유대를  
 나타낸다고 보았다.<sup>55)</sup>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월경의 기원에 죄의식의 정동이 존재한다는 점  
 이다. 자청비는 칼 선 다리에 오르기 전, 하늘님에게 “정수남이 죽였다 살  
 린 쉼 뱃긴 엿수다.”라고 자백한다. 그리고 월경은 그 누군가의 의도도 아

54) 허남춘 외, 앞의 책, 2009, 282~283면.

55) 김재용, 앞의 논문, 63~64면. 심치열은 서사에 등장한 월경이 여성성의 기원을 설명한다고 간략하게 서술했다.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의 미』,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254~256면.

닌 우연한 실수(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자청비를 안으려고 하다가, 혹은 자청비가 칼 선 다리를 내려오다가 미끄러져)로 흘린 피에서 시작된다. 게다가 치맛자락에 묻은 피는 직접 그 단어가 말해지지 않지만, 타자에 의해 발견되고 목격되고 호명됨으로써 분명히 주체의 수치심을 유발한다. 더욱이 월경법은 자신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은 타자 앞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낸 거짓과 기만에서 비롯된다. 태초의 월경 장면이 이미 가부장과 여성 사이의 위계 차이가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월경의 기원, 그 어디에도 신성의 아우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면만큼 여성성과 수치심, 죄의식이라는 정동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 처음부터 여성성과 수치심, 죄의식은 서로 들러붙어 있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와 <케.테.헌>의 시차를 생각하면 오늘날 여성 영웅이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수치심의 정동을 야기한다는 점은 절망스럽다. 자청비의 죄의식이 수치심으로 연결되듯이 루미의 수치심 또한 죄의식으로 연결된다. 자신으로 인해 이 세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루미는 스스로를 죄스러워한다. 쉘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칼로 베어달라고 복결하는 루미의 모습은 영락없이 한 죄인의 모습이다. 이때 루미는 자신을 '실수'로 칭한다.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혹은 부정당해야만 한다는 점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줄곧 써왔듯이 여성은 '영웅'이나 '신'이라는 일반명사 앞에 덧붙음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 영웅이, 신이 바로 여성일 순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여신과 여성 영웅의 행로는 겹쳐진다.

## 참고문헌

### 1. 자료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 2. 단행본

강소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24.

문무병, 『제주큰굿 자료집 1』, 황금알, 2019.

에리카 L. 존슨, 피트리샤 모런 편, 『여성의 수치심: 젠더화된 수치심의 문법들』, 손희정, 김하현 역, 글항아리, 202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민속원, 1991.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_\_\_\_\_,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허남춘,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사진』, 각, 2007.

### 3. 논문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연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2005, 307~346면.

강혜진, 『<귀공>, <K-pop 데몬 헌터스>로 본 K-판타지의 무속 활용 경향』, 『Journal of Korean Culture』 70,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25, 249~289면.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53~76면.

구태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의 역할과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5-5,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35~68면.

권도영,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타난 치유와 구원의 서사-전투미소녀 장르의 변용과 <바리공주> 서사의 현대적 구현』, 『한국문학과 예술』 55,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5, 297~330면.

권민성·조희영, 『K-POP, 무속 판타지, 글로벌 OTT의 만남: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읽는 문화콘텐츠 진화 전략』, 『콘텐츠와 산업』 7-4,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201~210면.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 한국무속학회, 2011, 7~30면.
- 김공숙,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구현된 '코리아니즘'의 양상과 의의」, 『콘텐츠와 산업』 7-4,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117~123면.
- 김기창·김선영,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문화적 혼종성 연구: 전통 무속문화와 K-Pop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5-11, 한국콘텐츠학회, 2025, 177~192면.
- 김나영, 「노비로 등장하는 정수남과 느진덕정하님의 정체-안사인본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105~140면.
- 김성훈, 「샤먼슈퍼영웅의 '걸 파워':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타난 포스트페미니즘의 변주」, 『문학과 영상』 26-2, 문학과영상학회, 2025, 377~408면.
- 김신정, 「제주도 신화 속 반(半)영웅적 존재의 의미」, 『우리말글』 79, 우리말글학회, 2018, 281~307면.
-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53~74면.
- 김정은, 「<지네각시> 설화의 서사적 화두로 본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서사 원리 연구」, 『문학치료연구』 77, 한국문학치료학회, 2025, 89~125면.
- 김준희, 「“영원히 깨질 수 없/있는” 불안을 통해 본 <케이팝 데몬 헌터스>」, 『2025 서울대학교 민속학연구센터 제2회 학술대회 샤머니즘과 K-컬처 발표자료집』, 34~44면.
-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93~219면.
-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119~145면.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3~262면.
-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여성영웅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207~244면.
- 오세경, 「유화와 자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59~290면.
-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199~229면.
- 이소윤, 「해계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들로부터의 탈주-<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 로」,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5~44면.
-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147~172면.
- 이은희,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 ‘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론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233~262면.
-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 2000, 293~323면.
- 임재욱 · 최지너,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와 『삼국유사』 소재 <처용 이야기>의 상호텍스트성』, 『고전문학연구』 68, 한국고전문학회, 2025, 539~568면.
- 정보라미, 『디지털 시대의 고전 서사 교육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소, 2025, 184~195면.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5~42면.
- \_\_\_\_\_, 『풍농(豊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111~144면.
- \_\_\_\_\_, 『풍요 여신은 ‘생산’하는가?—‘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83~224면.
- 조리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보는 한국 무속신앙의 현대적 가능성』, 『콘텐츠와 산업』 7-4,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235~239면.
- 조은영,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굿의 공연적 특성과 해원 기능의 변용 분석』, 『인문콘텐츠』 78, 인문콘텐츠학회, 2025, 269~296면.
- 조현설, 『정수남의 동물성과 자청비의 동물 되기—<세경본풀이> 보론—』, 『구비문학연구』 78, 한국구비문학회, 2025, 171~200면.
- \_\_\_\_\_,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2면.
- 조현아 · 김치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회적 드라마’이론 분석—굿의 의례성과 공연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88, 한국언어문화학회, 2025, 299~326면.
- 좌혜경, 『즈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1998, 181~199면.
-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흥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363~394면.

Patterns and Affect of Female Heroes and Deiti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K-Pop Demon Hunters(2025)  
and Segyeong-bonpuri -

Lee, Soyun

Why do female heroes experience shame while goddesses experience guilt? Considering that “pattern” denotes not only visible forms but also repeatedly performed behavioral modes, it is noteworthy that the affects experienced by female heroes and goddesses in K-Pop Demon Hunters and Segyeong-bonpuri are linked to certain patterns. In K-Pop Demon Hunters, Rumi undergoes shame due to the pattern of evil spirits inscribed on her body. In Segyeong-bonpuri, Jachungbi is seized by guilt because of the pattern of killings she committed to protect herself. Women’s shame is connected to the history in which women’s bodies have always been defined as different from men’s. The shame Rumi experiences is a gendered affect. Jachungbi’s guilt, likewise, is not divorced from gender, insofar as sexual violence lies at its origin. In the subsequent narrative, Jachungbi is pressured to experience shame, and in this sense, her guilt interlocks with shame. While Rumi becomes a female hero through overcoming shame, Jachungbi becomes a goddess by internalizing guilt. From this perspective, the trajectories of the female hero and the goddess can be seen as distinct. However, the primordial menstruation scene in Segyeong-bonpuri and the moment in K-Pop Demon Hunters where Rumi refers to herself as a “mistake” evoke the persistent reality that women remain grounded in a sense of self-negation. Ultimately, the trajectories of the goddess and the female hero converge.

Keywords: evil spirits, killing, gender, overcoming, internalization, menstruation, mistake, female hero, goddess

접수일자: 2026. 3. 31.

심사기간: 2026. 4. 1.~2026. 5. 10.

게재결정: 2026. 5. 10.